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유망사업

I. 지역간 연계·협력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개 권역의 체계적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다. 지역간 연계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자간 협력사업이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여 투입 대비 추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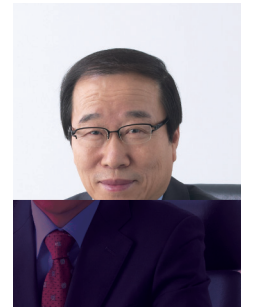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며, 부처마다 사업의 중복·분산이 심해져서 융복합형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

원칙적으로 협력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므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여 합의 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형성에 이르는 데 적극적 지원함으로써 동기유발 → 협의·조정 → 합의형성 → 성공모델 구축으로 전 자치단체에 연계협력사업은 정착시켜야 한다.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역량이 아닌 자생으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공모와 행정, 재정, 기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협력은 물론, 남북지역 간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경지역 간 협력으로 까지 발전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단일 품목 중심의 지역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부처·기능 간 연계형, 패키지 지원형, 프로그램형 등의 사업으로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촉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촉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법률의 목적, 협력사업의 유형, 지원대상 분야, 협